

## 일본 고전문학이 그려내는 흰 여우 이미지 고찰

- 중국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

진천우\*

### 〈차 례〉

1. 머리말
2. 『下学集』 중에 묘사된 다마모노마에의 특이성
3. 중·일 고전에 나타난 흰 여우
4. 작품 속 흰 여우 이미지의 변화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중세작품 『下学集』에 나타난 흰 여우 이미지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작품의 흰 여우 이미지를 비교 고찰한 것이다. 흰 여우는 양국 모두에서 길조로 여겨져서 통치자에게 바쳐지거나 제물로 사용되었다. 애초 중국에서 흰 여우는 덕과 장수의 상징으로 번영을 의미했으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서로움의

---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 과정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흰 여우 이외의 여우가 요괴로 인식되어 재난을 초래하는 존재로 여겨지자, 흰 여우도 점차 음탕한 요괴 이미지로 변모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또한 흰 여우 요괴 이야기가 출현하면서 다양한 이미지가 창출되었다. 즉,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사악한 흰 여우 이미지를 비롯하여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흰 여우까지보다 폭넓은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주제어: 흰 여우, 상서로움, 요괴, 다마모노마에, 중일 비교 문학

## 1. 머리말

중세부터 에도시대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다마모노마에(玉藻前)는 도바 상황(鳥羽上皇, 1103-1156)에게 사랑받는 미인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천하제일의 미녀’이자 ‘나라에서 으뜸가는 현녀(賢女)’로 묘사되지만, 그 실체는 여우 요괴였다. 이러한 다마모노마에 전설은 중세에 탄생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오토기조시(御伽草子) 『玉ものまゑ』(미상)가 있는데, 그녀는 두 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로 그려진다. 에도시대에 들어서면서 『三国妖婦伝』(1804)와 같은 작품에서는 ‘금모백면구미호(金毛白面九尾狐)’ 즉, 금빛 털에 흰 얼굴을 한 구미호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三国白狐伝』(1824)처럼 다마모노마에가 흰 여우로 등장하는 작품도 동시에 존재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음양사(陰陽師) 게임과 애니메이션 작품에서도 활용되는데, 특히 구미호라는 특징이 자주 사용된다. 이렇듯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마모노마에는 다양한 문학 작품은 물론 문화 콘텐츠로서 가장 유명한 여우 요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다마모노마에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구미호라

는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전설이 생겨난 당시에는 구미호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즉, 다마모노마에에 관한 중세작품을 살펴보면 그 정체는 유동적으로 에도시대가 되어서야 구미호로 통일되었다. 예를 들어 중세 역사서 『神明鏡』(14세기 후반), 일기 『臥雲日件録』(1446-1473), 노(能) 『殺生石』(미상)에 나오는 다마모노마에의 정체는 모두 평범한 여우이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인간을 현혹하고 국가에 재앙을 초래하는 다마모노마에가 지니는 요괴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오토기조시 『玉ものまえ』의 경우는 캐릭터 설정에 변화가 일어난다. 즉 다마모노마에의 이미지는 팔백 살이 넘는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거대한 채구의 여우로 표현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이 오토기조시 『玉ものまえ』를 중심으로 제 본, 작가, 주제, 내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나<sup>1)</sup>, 다마모노마에의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중세작품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사전 『下学集』(1444)에서 다마모노마에의 정체를 흰 여우 요괴로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일본에서 흰 여우는 오랫동안 신의 사자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下学集』 이전의 작품을 살펴봐도 흰 여우가 인간에게

1) 노성환, 「한일설화에 나타난 여우 구슬의 비교 연구」, 『일본어문학』 87, 2019, pp. 429-452.

이용미, 「お伽草子『玉藻前物語』에 관한 一考察 -妖怪退治의 構造 및 性格을 중심으로-」, 『한국어일본어학회』, 『일어일문학회』 47, 2003, pp. 203-218.  
岩木委子, 「『玉藻前物語』の研究」, 龍谷大学, 『龍谷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27号, 2005, pp. 405-408.

川島朋子, 「室町物語『玉藻前』の展開--能<殺生石>との関係を中心に」,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 『国語国文』 73-8号, 2004, pp. 18-34.

武居真穂, 「玉藻前説話における王権-三種の宝物と歴史的背景から-」, 日本女子大学国語国文学会, 『国文目白』 57号, 2018, pp. 123-132.

横山泰子, 「玉藻前説話にみられる自国意識と異国趣味」, 法政大学国際日本学研究中心, 『国際日本学』 8号, 2010, pp. 165-176.

吳章娣, 「『玉藻前物語』考-中国文学との関わりを中心に」, 青山学院大学日本文学会, 『青山語文』 49号, 2019, pp. 27-39.

해를 끼쳤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続日本紀』(797)에서는 상서로운 동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후 에도시대에 들어서면서 흰 여우에 관한 다양한 괴담이 생겨난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下学集』은 흰 여우 이미지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에 본문에서는 『下学集』의 흰 여우를 발단으로 중국과 일본의 작품을 비교하여 양국의 흰 여우 이미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下学集』 중에 묘사된 다마모노마에의 특이성

『下学集』은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일상용어 약 3,000개를 천지, 계절, 신기(神祇), 인물 등 18종류로 나눠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사전이다. 그 가운데 다마모노마에 전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과거 서역에 반족왕(斑足王)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그녀는 왕에게 천 명의 머리를 자르라고 부추겼다. 후에 중국에 태어나 주나라 유왕(幽王)의 왕후가 되었고 이름은 포사(褒姒)였다. 그녀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인간을 현혹하였다. 사후에는 다시 일본에 태어나 고노에(近衛) 천황 치세 때 다마모노마에라고 불렸다.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흰 여우의 모습을 드러내 또 많은 사람을 해쳤다.<sup>2)</sup>

『下学集』

2) 「昔西域有斑足王 其夫人惡虐過人 觀王取千人之首 其後出生支那国 為周幽王后 其名曰褒姒 滅國惑人 死後出生于日本近衛院宇 號玉藻前 傷人無極 後化成白狐害人惟多」  
日本国立国会図書館  
<https://ndlsearch.ndl.go.jp/books/R100000002-I000003284082> (검색일: 2024.9.13.)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와 중국을 거친 흰 여우가 일본에서 환생하여 다마모노마에가 되었다. 각국에서 흰 여우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상당히 특이한 설정이다. 왜냐하면 『下学集』 이외의 중세작품에는 요괴 다마모노마에가 등장하지만, 흰 여우라는 설정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노에 천황 때인 규주(久壽) 원년 센토고쇼(仙洞御所)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훗날 다마모노마에라고 불렸다. 천하에 둘도 없는 미녀이다... 아베노 야스나리(安倍泰成)가 주저 없이 이르기를 “이는 시모쓰케노쿠니(下野国) 나스노(那須野)의 여우입니다. 『仁王經』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여우는 옛날 천라국의 반족왕이 천 명의 왕의 목을 베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즈카노카미(塚の神)입니다. 중국에서는 포사라는 주나라 유왕후가 되어 결국 왕을 죽게 만들었고, 지금은 일본에 건너와서 폐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상하게 아뢰었다.<sup>3)</sup>

『神明鏡』

도바 천황 시절에 미녀가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름을 다마모노마에라고 하였으며 천황의 총애를 받았다. 그녀는 천축과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나중에 천황이 병이 들어 점을 보았는데 이 여자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를 올리자 여자는 여우로 변해 도망갔다.<sup>4)</sup>

『臥雲日件録抜尤』

- 
- 3) 「近衛院御時也 久壽元年仙洞一人化女出來レリ 後ニハ玉藻ノ御方ト號ス 天下無雙ノ美人也...憚所ナク申ケルハ 是は下野國那須野有狐也 彼狐云ハ 仁王經 昔天羅國班足王千人王ノ頸ヲ取祭シト云シ塚ノ神是也 大唐ニテ褒姒ト成 周ノ幽王后トシテ終幽王亡シ 已下今此の國ニ來君惱候也ト具申上ケレハ」  
日本国立公文書館  
<https://www.digital.archives.go.jp/item/730422.html> (검색일:2024.9.13.)
- 4) 「鳥羽院御宇 息有美女不知出所 名曰玉藻前 然為帝所寵能知天竺唐土之事言之爾後帝不豫ト之則此女所使然也 遂禱之 女變成狐逃去」  
日本文学研究資料館  
<https://kokusho.nijl.ac.jp/biblio/200019821/96?ln=ja> (검색일:2024.9.13.)

신기하도다. 둘로 쪼개진 돌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와 그 안쪽을 자세히 보니 여우(野干)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모습이다. 지금에 와서 무엇을 숨기겠는가. 나는 천축에서는 반족태자의 즈카노카미이었고, 중국에서는 유왕후 포사로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도바 천황의 다마모노마에가 된 것이다.<sup>5)</sup>

『殺生石』

또한, 오토기조시 『玉ものまえ』에 등장하는 다마모노마에의 이미지도 요괴의 특징은 가지고 있으나, 하얀 털 색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야스나리가 말하기를, 시모쓰케국 나스노에 팔백 살이 넘은 여우가 있다. 이 여우는 키가 7심(尋)이며, 꼬리가 두 개 있다고 한다. 그 여우의 유래에 대해 『仁王般若經』가 전하기를, 옛날 천축국에 한 왕이 있었고, 그 왕에게는 반족이라고 불리는 태자가 있었다. 그 반족태자가 천 명의 왕의 목을 베어 즈카노카미에게 제사를 지냈다...주나라 유왕의 왕비가 되어 결국 유왕을 멸망시키고야 말았다. 그 후 일본으로 건너와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다.<sup>6)</sup>

『玉ものまえ』

5) 「不思議やな この石二つに割れ。光の内をよく見れば。野干の形はありながら。さも不思議なる 仁體なり 今は何をか包むべき。天竺にては 斑足太子の塚の神 大唐にては幽王の後褒姒と現じ。わが朝にては鳥羽の院の。玉藻の前とはなりたるなり」

廿四世觀世左近 訂正, 『殺生石』, 桧書店, 1934, pp. 8-9.

6) 「やすなり申やう しもつけのくになすのには 八百さいをへたるきつね有 かのきつねのたけは七ひろ お二つあるへし かのきつねのゆらひを申候は 人わうはむにやきやうにいはいく むかし 天ちこくに ひとりのわう有 そのわうに 一人のたいしあり はんそくといふ かのはんそくたいし 千人のわうのくひをきりて つかのかみみにまつりて...周の宥王のきさきとなりて つるにゆうわうをほろほしをはんぬ そののち 我朝しちいきにけけんしせり」

西沢正二 石黒吉次郎校注, 『お伽草子— おようの尼・玉もの前』, 新典社, 1992, pp. 92-95.

즉, 이들 작품과의 비교 및 종래 일본에서 흰 여우가 주로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겨져 신앙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下學集』에서 그려지는 ‘흰 여우 다마모노마에’가 얼마나 독창적인 설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미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흰 여우는 요괴의 화신으로도 간주되고 있었다. 직접적인 논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下學集』의 저자<sup>7)</sup>가 중국 작품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sup>8)</sup> 다마모노마에의 이미지 설정 과정에서 중국 여우의 이미지를 차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하, 다음 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고전 작품을 대상으로 흰 여우 이미지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3. 중·일 고전에 나타난 흰 여우

예로부터 중국과 일본에서는 붉은 여우의 개체 수가 가장 많았고, 흰 여우는 붉은 여우의 변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국 상나라 때의 점괘를 기록한 『卜辭』(미상)와 역사서 『東觀漢記』(미상)에 나오는 흰 여우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왕은 점을 치게 하면서 “사냥을 갔다 오는 길에 재앙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나서 사슴 한 마리... 사불상(四不像) 두 마리, 흰 여우 한 마리를 사냥했다.<sup>9)</sup>

『卜辭』

7) 교토 히가시야마(東山) 겐닌지(建仁寺)의 승려(東麓の破衲)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8) 조사 결과 『下學集』의 서문이 『昌黎先生集』(824) 중에 나오는 한유(韓愈)의 문학사상을 인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漢書』 및 『論語』 등에서 어구를 인용하고 있다.

9) 「王卜貞 惟往(來)亡災 獲鹿...麋二白狐一」

劉美榮, 「話說殷商尚白習俗」

<http://yinshangwenhua.com/NewsDetail.aspx?ID=103> (검색일:2024.10.13.)

한나라 장제(章帝) 때 흰 여우가 나타나 여러 신하가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글을 올렸다.<sup>10)</sup>

『東觀漢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단순한 여우가 아닌 ‘흰 여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중국 황제가 흰 여우를 사냥하거나 흰 여우가 출현하면 신하들이 황제의 장수를 기원한 것이다. 이는 흰색이 곧 수명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나라 때의 유교와 도교 이론서인 『抱朴子』(미상)에는 “호랑이, 사슴, 토끼는 모두 천 살까지 살 수 있는데, 오백 살까지 살면 털 색깔이 흰색으로 변한다. ... 쥐의 수명은 삼백 살인데, 백 살이 되면 털 색깔이 흰색으로 변한다.<sup>11)</sup>”라고 한 바와 같이 흰색은 곧 장수의 이미지이며, 이러한 개념은 아마도 사람이 나이가 든 후에 흰머리가 생기는 현상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역사서 가운데는 『日本書紀』(720), 『続日本紀』(797)에서 다음과 같은 흰 여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해사(西海使) 소화하(小花下) 아즈미노무라지츠라타리(阿曇連煩垂)와 소산하(小山下) 츠노오미쿠즈마(津臣偏僕)가 백제에서 돌아와 낙타 한 마리, 노새 두 마리를 바쳤다. 이와미노쿠니(石見国)에서 흰 여우를 보았다.<sup>12)</sup>

『日本書紀』

10) 「章帝時 白狐見 群臣上壽」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dong-guan-han-ji/su-zong-xiao-zhang-huang-di/zhs>(검색일:2024.10.13.)

11) 「虎及鹿兔 皆壽千歲 壽滿五百歲者 其毛色白…鼠壽三百歲 滿百歲則色白」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baopuzi/dui-su/zhs?searchu=%E8%99%8E%E5%8F%8A%E9%B9%BF%E5%85%94> (검색일:2024.10.13.)

12) 「西海使小花 下阿曇連煩 垂・小山下津臣偏僕 自百濟還 獻駱駝一箇・驢二箇 石見国言白狐見」



엔라쿠(延暦) 원년 4월 을축(乙丑) 때에 천황은 정(正)6위 상(上), 문진인(文真人) 상(上), 그 외 종(從) 5위 하(下)의 관직을 임명하였다. 중각문에 흰 여우가 나타났다. 무진(戊辰) 때에 천황은 기나이(畿内)에 사자를 파견하여 비를 기원하였다.<sup>13)</sup>

『続日本紀』

먼저, 흰 여우가 출현했다는 이와미노쿠니(石見国)는 지명유래에 따르면 신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즉, 야쓰카미즈오미쓰노미코토(八束水臣津野命)라는 신이 아이로이시(八色石)라는 돌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서 그 돌을 잘라 사람들을 구원했기에, ‘이와미’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4)</sup> 또한, 흰 여우가 나타났다는 중각문은 일찍이 대극전(大極殿) 앞에 있었던 문으로<sup>15)</sup> 흰 여우는 신과 관계가 있거나 천황의 처소와 가까운 곳에 출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나아가 흰 여우는 중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조정에 바쳐지는 진상품이기도 하였다.

당 숙종(肅宗) 때인 정광(正光) 2년 3월, 남청주(南靑州)에서 조정에 흰 여우 두 마리를 바쳤다.

(당 숙종 때인 정광) 3년 6월 평양군(平陽郡)에서 조정에 흰 여우를 바쳤다.<sup>16)</sup>

『魏書』

연민수·김은숙·이근우·정효운·나행주·서보경·박재용,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3, pp. 283-284.

13) 「延暦元年四月乙丑 授正六位上文真人上外從五位下 重閣門白狐見 戊辰遣使畿内祈雨焉」

日本国文学研究資料館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067714/889?ln=ja>(검색일:2024.10.13.)

14) 公益社団法人 島根県観光連盟, 「石見国の国名由来」

<https://www.kankou-shimane.com/destination/20846>(검색일:2024.10.19.)

15) 井上充夫, 「古代における門の一性格」, 日本建築学会, 『日本建築学会論文報告集』第60号, 1958, pp. 581-584.

16) 「肅宗正光二年三月 南靑州獻白狐二」, 「(肅宗正光)三年六月 平陽郡獻白狐」,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레이키(靈龜) 원년 정월 갑신(甲申) 때 천황은 대극전에서 새해 인사를 받았다...이날 동쪽 하늘에 경사스러운 구름이 보였고, 도토미노쿠니(遠江国)에서 조정에 흰 여우를 헌상하였다.

텐포(天平) 12년 봄 정월 무자삭(戊子朔) 때 천황은 대극전에서 새해 인사를 받았다...히다노쿠니(飛騨国)에서 흰 여우와 흰 꿩을 헌상하였다.<sup>17)</sup>

『続日本紀』

흰 여우가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어 조정에까지 헌상될 수 있었는지 추측해 보면, 여우가 ‘덕’을 지녔다고 생각했던 중국 유학자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경학자(經學者)로 알려진 허신(許慎, 58-148)이 지은 『說文解字』(기원전 100년)에서는 여우에 대해 “여우에게는 세 가지 덕이 있는데, 털 색깔은 조화롭고 머리는 작고 꼬리는 크며, 죽을 때는 머리가 등지 쪽을 향한다.<sup>18)</sup>”라고 하였다. 이는 여우의 체형과 외모를 ‘존비(尊卑) 질서’와 연결시킨 것이다. 즉, 작은 머리와 큰 꼬리라는 특징은 작은 것에서 점차 커져서 균형을 이루는 존비 질서를 나타낸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머리가 등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19)</sup> 즉, 여우가 지닌 특성에 유학자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226660&remap=gb>(검색일:2024.10.13.)

- 17) 「靈龜元年正月甲申 天皇御大極殿受朝...是日東方慶雲見 遠江国献白狐」, 「天平十二年春正月戊子朔 天皇御大極殿受朝賀...飛騨国献白狐白雉」  
日本国文学研究資料館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067714/276?ln=ja>(검색일:2024.10.13.)

- 18) 「狐 禊獸也 鬼所乘之 有三德 其色中和 小前大後 死則丘首」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shuo-wen-jie-zi/zhs?searchu=%E7%8B%90>(검색일:2024.10.13.)

- 19) 中国民俗学网

들이 도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훗날 여우가 길한 동물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흰 여우는 희귀한 색깔 덕분에 진귀한 동물로 여겨졌다. 그래서 제사가 성행하던 주나라 때는 흰 여우를 사냥하는 것이 상서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천자가 직접 흰 여우를 사냥하여 제사 제물로 바쳤다. 나아가 진나라의 시인이자 학자였던 곽박(郭璞, 276-324)은 흰색을 띠는 모든 사냥감을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갑진(甲辰) 날, 동주(東周)의 목왕(穆王)이 황허에서 사냥했다. 마지막에 흰 여우 한 마리, 검은 너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하종(河宗) 일대에서 제사를 지냈다.

(곽박의 주석) 강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뜻밖에 흰 여우를 얻어 제물로 삼았다. 한 무제는 교외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뿔이 난 흰 사슴 한 마리를 얻고서 상서로운 일이라고 여겨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불태웠다.<sup>20)</sup>

『穆天子傳注補正』

이후, 전한에 이르러서는 참위설(讖緯說)<sup>21)</sup>의 영향으로 흰 여우의 출현은 국가와 천하의 번영을 점치는 징조가 되었다. 후한 말

<https://www.chinafolklore.org/web/index.php?NewsID=16683>(검색일: 2024.10.15.)

- 20) 「甲辰 天子獵於滸澤 於是得白狐玄貉焉 以祭於河宗 郭註 以將有事於河 奇此獲故用之 漢武帝郊祀得一角白鹿 以為祥瑞 亦將燎祭之類」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mutianzi-zhuan/zhs?searchu=%E7%99%BD%E7%8B%90>  
(검색일: 2024.10.13.)

- 21) 중국 한나라 경전에 의거해 예언한 학설로서 그 연원은 ‘하도낙서(河圖洛書)’라는 예언서이다. 이는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일식·월식·지진 등의 천지이변이나 은어(隱語)에 의하여 인간 사회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설이다.

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자 권력자는 통치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더 참위설의 힘을 빌렸다. 즉, 후한 때 경학자 종균(宗均, 11-76)의 말을 빌리자면 상서롭다는 동물을 이용하여 하늘의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정권의 합법성을 주장한 것이다.

흰 여우가 나타나면 백성들이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천자의 뜻을 거스른다. 이에 종균이 이르길 “여우는 양의 정기를, 흰색은 신의 색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하얀 여우가 나타나면 백성들이 이익을 얻고, 나타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치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2)</sup>

『稽瑞』

또한, 인용문에서 보듯이 흰색은 신의 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흰 여우는 곧 신수(神獸)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역사서 『宋書』(488)에서는 “통치자에게 인덕과 지혜가 있다면 흰 여우가 나타날 것이다.”<sup>23)</sup>라고 하였듯이, 흰 여우의 출현은 천하가 태평하고 통치자는 현명하며 정책은 인심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흰색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고대 신화에서는 종종 신을 ‘흰색 동물’로 표현하거나 흰 사슴, 흰 뱀 등을 신으로 여겨 이들의 출현은 길조라고 믿었다. 예를 들어 『日本書記』(720)에는 다음과 같이 나카토(穴門) 지방의 수령이 고토쿠(孝徳, 596-654) 천황에게 흰 꿩을 바쳐서 연호가 ‘하쿠치(白雉)’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흰색이 시대를 바꾸는 힘 또한

22) 「白狐至則民利 不至則下驕恣 宗均曰 狐 陽精也 白者 神也 清白則民受利焉 不至 君無治行 故下姿驕」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958567> (검색일:2024.10.13.)

23) 「白狐 王者仁智則至」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27806> (검색일:2024.10.13.)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가토국사(穴門国司) 구사카베노무라지시코부(草壁連醜經)가 흰 뿔을 바쳤다. ... (천황은) 조(詔)를 내려 “사방의 여러 국군(国君)은 하늘이 맡겨 주셨으므로, 짐이 다스리고 있다. 지금 나의 친애하는 조상신이 다스리는 나카토 국에서 이 길조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천하에 대사(大赦)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하쿠치 원년이라고 정한다.”라고 명하였다.<sup>24)</sup>

『日本書紀』

이렇듯 흰색이 지니는 이미지 덕분에 흰 여우는 일반적인 붉은 여우보다 한 단계 높은 존재로 여겨졌고 『延喜式』(905)에서 보듯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흰 여우를 상서로움의 상징으로 바라보았다.

상서로움으로는 흰 코끼리, 우대서(右大瑞)로는 흰 늑대, 흰 여우, 흰 사슴이 있다. 우상서(右上瑞)로는 흰 비둘기, 흰 까마귀가 있다.<sup>25)</sup>

『延喜式』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작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양국의 흰 여우는 여러 방면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서로움의 상징이었던 흰 여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쁜 이미지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요괴라는 이미지로 변모하기에 이른다.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

24) 「二月庚午朔戊寅 穴戸國司草壁連醜經 獻白雉…詔曰 四方諸國郡等 由天委付之故 朕總臨而御寓 今我親神祖之所知穴戸國中有此嘉瑞 所以大赦天下 改元白雉」

앞의 『역주 일본서기 3』, pp. 236-241의 번역을 토대로 수정하였다.

25) 「祥瑞白像 右大瑞白狼白狐白鹿 右上瑞白鳩白鳥」

早稲田大学図書館

[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wa03/wa03\\_01594/index.html](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wa03/wa03_01594/index.html)

(검색일:2024.10.13.)

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 4. 작품 속 흰 여우 이미지의 변화

중국에서는 진나라 시기까지 흰 여우를 제외한 보통의 여우는 음란한 동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詩經』에는 음탕한 제양공(齊襄公)<sup>26)</sup>을 ‘ 짝을 찾는 수컷 여우’로 비유한 시구가 등장한다.<sup>27)</sup> 이는 훗날 여우가 음탕한 요괴로 그려지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이미 전한 시대부터 여우는 퇴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易林』(기원전 206-220)에는 여우가 상서롭다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난을 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sup>28)</sup> 이어 후한 시대의 학자 허신은 『說文解字』에서 여우는 세 가지 덕

26) 춘추시대 제나라의 14번째 왕 제양공(齊襄公)은 자신의 친여동생인 문강(文姜)과 근친상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남산(南山)은 웅장하고 높으며, 수컷 여우는 홀로 천천히 걷는다. 노나라(魯國)의 길은 넓고, 제나라(齊國)의 딸 문강(文姜)이 이곳으로 시집갔다. 이미 여기에 시집갔는데, 어찌서 고향을 그리워하는가(南山崔崔 雄狐綏綏 魯道有蕩 齊子由歸 既日歸止 曷又懷止)」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book-of-poetry/odes-of-qi/zhs> (검색일:2024.10.13.)

28)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우가 성을 향해 짖어대며 사흘 동안 비명을 질렀고, 이에 현읍의 영주가 매우 놀랐다.(國將有事 狐嚙向城 三日悲鳴 邑主大驚)」

「장녀는 세 번 시집을 갔는데, 집에 있을 때 행동이 혼란스러웠다. 그 이유는 암 여우가 장난을 쳤기 때문으로 걱정한 가족들이 밤에 여우를 쫓아냈다.(長女三嫁 進退無羞 牝狐作妖 夜行離憂)」

「새가 놀라고 여우가 울부짖으면 나라에는 전란이 일어나고 평온이 깨진다. 통치자의 권력은 약화되고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강성해지며 비밀리에 형벌이 시행된다.(鳥驚狐鳴 國亂不寧 上弱下強 為陰所刑)」

萍一嚴, 『焦氏易林』 第三卷, 藝文印書館, 1968, p. 88, p. 17, p. 70.

을 가지고 있지만, 귀신이 깃든 요수(妖獸)라고 보았다.<sup>29)</sup> 이렇듯, 여우 이미지가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서도 흰 여우는 여전히 상서로운 존재였고, 나머지 붉은 여우는 때때로 흉조를 상징하며 나라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다만, 전한 시대 유흠(劉歆, 기원전 46-기원후 23)은 『西京雜記』(미상)에서 흰 여우도 인간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느 날 광천왕은 산서(鑾書)<sup>30)</sup>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그 속에 있던 관곽과 부장품들이 다 썩어 있었다. 그때 한 마리의 흰 여우가 사람을 보고 놀라서 도망갔다. 부하들이 쫓아갔지만 잡지 못하고 도망치던 흰 여우는 왼쪽 발을 다쳤다. 그날 밤 광천왕의 꿈속에 흰 수염과 눈썹을 한 남자가 나타나서 “왜 내 왼발을 다치게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고서 지팡이로 왕의 왼발을 때렸다. 왕이 잠에서 깨어난 후 왼발이 붓고 아팠으며 이때 생긴 종기는 죽을 때까지 낫지 않았다.<sup>31)</sup>

『西京雜記』

그러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인간이 흰 여우에게 가한 짓 때문에 인간이 복수를 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흰 여우가 광천왕을 공격하는 행동은 이 시기에는 아직 흰 여우의 요괴화가 과도기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즉, 흰 여우는 여전히 상서로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복수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발생한 것이므로, 인간에 대한 해악으로 볼 수 없다는 것

29) 「狐 妖獸也 鬼所乘之 有三德」

<https://ctext.org/shuo-wen-jie-zi/zhs?searchu=%E7%8B%90>(검색일:2024. 10.13.)

30)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대부(大夫).

31) 「鑾書冢 棺柩明器朽爛無餘 有一白狐 見人驚走 左右遂擊之 不能得 傷其左腳 有夕(廣川)王夢一丈夫 鬚眉盡白 來謂王曰 何故傷吾左腳 乃以杖叩王左腳 王覺 腳腫痛生瘡 至死不差」

王謨, 『西京雜記』 第六卷, 『精校大字漢魏叢書九十六種』, 上海大通書局, 1911, p. 41.

이다.<sup>32)</sup>

반면, 당나라 때의 지괴소설(志怪小説)<sup>33)</sup> 『廣異記』(미상) 속의 흰 여우는 상서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해당 이야기 속 흰 여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며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악함으로 볼 수 있다.

개봉현(開封縣) 현령의 어머니가 여우에게 홀려 주술사들도 고칠 수가 없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도사가 말하길, “어떤 대열을 보았는데 기이한 사람이 여기를 지나갈 것이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노부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령은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을 기다리게 했다...이튿날, 그 사람이 현령의 집에 와서 노부인을 보고 병세를 묻고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묻혀 노부인의 몸에 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늙은 흰 여우 한 마리가 침상 밑에서 기어나와 다리로 달려가 사라졌다.<sup>34)</sup>

『廣異記』

한편, 일본에서도 여우가 흉조라는 기록이 나온다. 『日本靈異記』(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저자 교카이(景戒, 생몰년 미상)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여우가 울부짖은 뒤 아들과 딸이 잇따라 죽은 일을 기록하고 있다.<sup>35)</sup>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중국의 『搜神記』(4세

32) 李建国, 『中国狐文化』, 人民文学出版社, 2000, p. 64.

33) 주로 육조 시대의 중국에서 쓰여진 기괴한 이야기로, 동시기의 지인소설(志人小説)과 당나라 전기소설(伝記小説)의 토대가 되었다.

34) 『開封縣令者 其母患狐媚 前後術士不能能療 有道士者善見鬼 謂令曰 今比見諸隊仗 有異人跡 若得此人 太夫人疾苦必愈……明天 至舍 見太夫人 問以疾苦 以柳枝灑水於身 須臾 有老白野狐自牀而下 緩行至縣橋 而後不見』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978477&searchu=%E7%99%BD&remap=gb>(검색일:2024.10.22.)

35) 「재앙과 좋은 일의 징조가 미리 나타나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난 이야기(災与善表相先現而後其災善答彼縁)」  
정천구 역, 『일본영이기』, 씨아이알, 2011, pp. 330-345.



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우가 어떤 사람의 집을 향해 울부짖자 집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다만, 짐승 형태의 흰 여우가 직접 인간을 해친다는 기록은 일본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여우는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여우 요괴로 점차 변모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중국의 경우는 음탕한 여우 요괴와 사악한 여우 요괴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진나라 이후의 지괴소설에 등장하는 음탕한 여우 요괴는 인간을 성적으로 매혹시키는 일이 잦으며 이러한 성적 이미지는 여우 요괴 이야기에서 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후세의 수많은 여우 요괴 이야기들은 이런 요소에서 출발한 것이 많다. 이에 반해 사악한 여우 요괴는 성적인 것과는 무관하지만, 유해성은 음탕한 여우보다 강하다.

나아가, 당나라 때는 다양한 여우 요괴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여우 요괴의 암컷화 경향이 두드러졌고, 암컷 여우가 미녀로 둔갑하여 남자를 현혹하는 유형의 이야기 비율이 증가했다. 심지어 흰 여우도 다음과 같이 상서로운 여우 이미지에서 변모하여 여인의 모습을 한 여우 요괴로 묘사된다. 즉, 흰 여우는 인간으로 둔갑할 능력은 지니고 있지만, 쉽게 그 정체를 들키고 마는 존재로 이전의 상서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당나라 치현(祁縣)의 한 마을 사람이 인력거를 사용하여 세금으로 낼 좁쌀을 태원부(太原府)로 가져갔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길가에 서서 마을 사람에게 “도성에서 왔는데 너무 졸리네요. 수레에 타도 될까요?”하고 물으니 마을 사람이 허락해서 그녀를 태웠다. 서너 리를 달리자 갑자기 여우 꼬리가 수레의 틈 사이로 나와서 아래로 늘어뜨린 것이 보였다. 마을 사람은 낮으로 그 꼬리를 잘랐다. 그러자 여자는 꼬리 없는 흰 여우로 변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sup>36)</sup> 『宣室誌』

36) 「唐祁縣有村民 因輦地微芻粟至太原府 及歸 途中日暮 有一白衣婦人 立路旁謂村民曰 妾今日都城而來 困且甚 願寄載車中可乎 村民許之 乃升車 行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흰 여우의 모습은 더욱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명나라 때 작품 『三遂平妖伝』(미상)에 나오는 늙은 암컷 흰 여우는 나이를 알 수 없으며 법술에 능하여 인간 사회의 정치 싸움에까지 개입한다. 이는 앞서 본 『宣室誌』의 흰 여우 요괴와 비교하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질서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동시대 소설 『蕉帕記』(미상)에서 그려지는 흰 여우는 신선이 되기 위해 여자로 둔갑해 남자에게 접근하여 정기를 빨아들인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 후 신선의 제자가 되어 비로소 신선이 되는 목표를 이룬다. 이는 흰 여우가 요괴에서 신선으로 변하는 것으로, 이전의 흰 여우 이미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음탕한 요괴에서 다시금 원래의 신수(神獸)였던 상서로운 존재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소설 속 흰 여우의 음탕한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었다. 『聊齋志異』(1740)에 나오는 흰 여우는 남자로 둔갑하여 남녀 주인공을 동시에 유혹하는 악랄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 시기의 흰 여우는 상서로움이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사악하고 음탕한 요괴로 변모한 것이다.

이렇듯 중국 작품을 개관하였을 때, 흰 여우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작품에 등장하는 흰 여우의 이미지는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중국, 인도, 일본 세 나라를 거치며 미색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요괴인 다마모노마에를 비롯하여 음양사 아베노 세이메이(安倍晴明, 921-1005)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여우 요괴

---

未三四里 因脂轄 忽見一狐尾在車之隙 中垂於車轅下 村民即以鎌斷之 其婦人化為無尾白狐 嗚嗚而去」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318867&remap=gb#p22>(검색일: 2024.10.13.)

인 ‘구즈노하(葛の葉)’도 있다. 반면, 사찰의 주지로 둔갑해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하쿠조슈(白蔵主)와 같은 존재도 있다. 이하, 이들 흰 여우 요괴 이야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인간으로 둔갑한 최초의 흰 여우 사례로 다마모노마에를 들 수 있다. 중세부터 다양한 작품에 등장했으나, 흰 여우의 정체가 다마모노마에라는 설정은 앞서 2장에서 고찰한 『下学集』뿐이다. 한편, 에도시대에 들어서서는 『勸化白狐通』(1766), 『三国白狐伝』(1824), 『通俗白狐通』(1791)와 같은 여러 작품에서 흰 여우의 모습으로 다마모노마에가 등장한다. 이들 작품에서 다마모노마에는 중국의 흰 여우 요괴에 비해 훨씬 더 위협적이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통치자에게 접근하여 왕조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 즉, 두뇌가 명석하며 권력욕을 지닌 악한 요괴라고 할 수 있다. 미색으로 인간에게 접근하는 점에서는 중국의 흰 여우 요괴와 유사하지만, 해치는 대상이 국가의 통치자라는 면에서 스케일이 크고 야망을 지녔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흰 여우 요괴로는 가부키(歌舞伎) 『蘆屋道満大内鑑』(1734)에 등장하는 ‘구즈노하’가 있다. 그녀는 무로마치 시대에 생겨난 아베노 세이메이의 탄생 전설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다. 어느 날 아베노 야스아키(安倍保明)가 사냥꾼에게 쫓기던 흰 여우를 구했는데, 그 흰 여우가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해 야스아키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아베노 세이메이라는 것이다. 중국에도 여우에 관한 이류혼인담은 많지만, 구즈노하처럼 흰 여우 사례는 거의 없다.<sup>37)</sup>

이외에도 『絵本百物語』(1841)에 등장하는 흰 여우 화신이 있다. 호토지(宝塔寺)의 주지인 하쿠조슈가 어느 날 조카를 찾아가 돈을

37) 앞서 언급한 『蕉帕記』에 나오는 흰 여우 또한 인간과 인연을 맺지만, 부부가 되지는 않는다.

주며 사냥을 그만두도록 설득한다. 실은 이 하쿠조슈는 사냥꾼에 의해 새끼를 잃은 여우가 둔갑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카는 이내 돈을 다 써버리고 숙부를 찾아가는데, 이미 흰 여우에게 죽임을 당한 후였다. 이후 흰 여우는 50년 동안 절에서 하쿠조슈로서 지내게 된다. 어느 날, 귀족이 사슴을 사냥하러 나왔을 때, 하쿠조슈도 군중 속에 섞여서 구경하다가 사냥개에 의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결국, 사냥개에게 잡혀 죽고 나서 흰 여우 정체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덕망 높은 주지가 흰 여우 요괴의 화신이었다는 것은 중국의 흰 여우 이야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설정이다.

이상, 중국과 일본의 흰 여우 요괴의 이미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의 흰 여우는 상서로운 이미지에서 점차 요괴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었다. 즉, 인간에게 복수하기 위해 해를 끼치거나, 신선이 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다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음탕한 본성으로 인간을 매혹시키기도 하였다. 반면 일본의 흰 여우는 요괴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즉, 다마모노마에처럼 나라의 통치자를 뒤흔들 정도의 야망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거나, 또는 쿠즈노하처럼 인간과 인연을 맺어 아베노 세이메이라는 음양사를 낳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인간을 살해하고 전례 없이 덕망 높은 스님으로 둔갑하는 하쿠조슈와 같은 유형도 그려진다.

## 5. 맺음말

본고는 중세작품 『下学集』에 등장하는 다마모노마에가 상서로움의 상징인 흰 여우로 그려지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여,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작품 속에 그려지는 흰 여우 이미지를 비교 고찰한 것이다.

먼저, 중국과 일본 양국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흰 여우가 지니는 이미지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흰 여우는 드문 존재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통치자의 주변에 출몰하는 특징이 있었다. 통치자에게 공물로 바쳐졌으며, 중국에서는 제물로도 사용되었다. 이렇듯 흰 여우가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 이유는 통치자가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서 흰 여우는 덕과 장수를 의미하는 상서로움의 상징으로 그 출현이 국가의 번영을 나타낸다고 여겼으며, 일본에서도 흰 여우의 출현은 마찬가지로 길조로 간주되었다.

다음으로 두 나라 작품에 나타난 흰 여우 이야기를 비교하여 이미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한나라 시기부터 여우 이미지의 이중성이 확인되었다. 즉, 흰 여우는 상서로움의 상징인 동시에 그렇지 않은 여우들은 요괴의 이미지로 등장했다. 다시 말해, 흰 여우 이외의 여우는 재난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동시대의 작품에서 흰 여우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도 나타났다. 이는 흰 여우 이미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소설에서는 인간으로 둔갑하는 여우 요괴가 등장했으며, 특히 당나라 작품에는 흰 여우가 여자로 둔갑하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 명청시대에 이르러 흰 여우는 점차 음탕한 요괴 이미지로 변모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흰 여우는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다마모노마에의 이미지는 미모를 무기로 삼아 통치자에게 접근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한다. 다마모노마에의 성격은 중국의 흰 여우 요괴에 비해 정치적으로 더 큰 야망과 권력욕을 보여준다. 또한, 이류혼인담에 등장한 구즈노하는 은혜를 갚기 위해 인간의 아내가 되어 음양사 아베노 세이메이를 낳게 된다. 그녀는 중국의 음탕한 여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외에도 하쿠조슈의 경우는 존경받는 승려가 요괴의 화신이었다는 설정으로, 이는 일본 고유의 독창적인 흰 여우 유형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본 논고를 발전시켜 『三国妖婦伝』을 비롯한 에도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구미호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연민수·김은숙·이근우·정효운·나행주·서보경·박재용,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3, pp.236-241, pp.283-284.
- 『延喜式』, 早稲田大学図書館  
[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wa03/wa03\\_01594/index.html](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wa03/wa03_01594/index.html) (검색일:2024.10.13.)
- 『下学集』, 日本国立国会図書館  
<https://ndlsearch.ndl.go.jp/books/R1000000002-I000003284082> (검색일:2024.9.13.)
- 『神明鏡』, 日本国立公文書館  
<https://www.digital.archives.go.jp/item/730422.html> (검색일:2024.9.13.)
- 『続日本紀』, 日本国文学研究資料館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067714/889?In=ja> (검색일:2024.10.13.)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067714/276?In=ja> (검색일:2024.10.13.)
- 西沢正二 石黒吉次郎校注, 『お伽草子— およの尼・玉もの前』, 新典社, 1992, pp. 92-95.
- 廿四世観世左近 訂正, 『殺生石』, 桧書店, 1934, pp. 8-9.
- 『臥雲日伴録抜尤』, 日本国文学研究資料館  
<https://kokusho.nijl.ac.jp/biblio/200019821/96?In=ja> (검색일:2024.9.13.)
- 『抱朴子』,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baopuzi/dui-su/zhs?searchu=%E8%99%8E%E5%8F%8A%E9%B9%BF%E5%85%94> (검색일:2024.10.13.)

- 『東觀漢記』,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dong-guan-han-ji/su-zong-xiao-zhang-huang-di/zhs> (검색일:2024.10.13.)
- 『広異記』,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978477&searchu=%E7%9BD&remap=gb> (검색일:2024.10.22.)
- 『稽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958567> (검색일:2024.10.13.)
- 劉美榮, 「話說殷商尚白習俗」  
<http://yinshangwenhua.com/NewsDetail.aspx?ID=103> (검색일:2024.10.13.)
- 『穆天子傳注補正』,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mutianzi-zhuan/zhs?searchu=%E7%99%BD%E7%8B%90> (검색일:2024.10.13.)
- 萍一嚴, 『焦氏易林』 第三卷, 藝文印書館, 1968, p. 88, p. 17, p. 70.
- 『說文解字』,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shuo-wen-jie-zi/zhs?searchu=%E7%8B%90> (검색일:2024.10.13.)
- 『宋書』,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27806> (검색일:2024.10.13.)
- 『詩經』,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book-of-poetry/odes-of-qi/zhs> (검색일:2024.10.13.)
- 『魏書』,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226660&remap=gb> (검색일:2024.10.13.)
- 王謨, 「西京雜記」 第六卷, 『精校大字漢魏叢書九十六種』, 上海大通書局, 1911, p. 41.
- 『宣室誌』, 中国哲学書電子化計画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318867&remap=gb#p22> (검색일:2024.10.13.)

## 2. 논문

- 노성환, 「한일설화에 나타난 여우구슬의 비교 연구」, 일본어문학회, 『일본어 문학』 87, 2019, pp. 429-452.

- 이용미, 「お伽草子『玉藻前物語』에 관한-考察-妖怪退治의 構造 및 性格을 중심으로」, 한국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연구』 47, 2003, pp. 203-218.
- 井上充夫, 「古代における門の一性格」, 日本建築学会, 『日本建築学会論文報告集』 第60号, 1958, pp. 581-584.
- 岩木委子, 「『玉藻前物語』の研究」, 龍谷大学, 『龍谷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27号, 2005, pp. 405-408.
- 川島朋子, 「室町物語『玉藻前』の展開—能(殺生石)との關係を中心に」, 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 『国語国文』 73-8号, 2004, pp. 18-34.
- 武居真穂, 「玉藻前説話における王権-三種の宝物と歴史的背景から-」, 日本女子大学国語国文学会, 『国文目白』 57号, 2018, pp. 123-132.
- 横山泰子, 「玉藻前説話にみられる自国意識と異国趣味」, 法政大学国際日本学研究センター, 『国際日本学』 8号, 2010, pp. 165-176.
- 吳章娣, 「『玉藻前物語』考-中国文学との関わりを中心に」, 青山学院大学日本文学会, 『青山語文』 49号, 2019, pp. 27-39.

張程, 「九尾狐從祥瑞到妖異轉變的思想內涵—以漢唐爲中心的考察」, 中国民俗学网  
<https://www.chinafolklore.org/web/index.php?NewsID=16683>(검색일:2024.10.15.)

### 3. 단행본

- 정천구 역, 『일본영이기』, 씨아이알, 2011, pp. 330-345.
- 李建国, 『中国狐文化』, 人民文学出版社, 2000, p. 64.

(투고일: 2024. 11. 20 심사완료일: 2024. 12. 17 게재확정일: 2024. 12. 23)

진천우  
소 속: 제주대학교  
주 소: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5호관 c433  
전자우편: jinchonu97@gmail.com



[Abstract]

An Examination of the White Fox Image in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 Through a Comparison with Chinese Works —

Chen Xiyu

This study explores the portrayal of white foxes in Japan's medieval Gagakushū(下学集) and compares it with depictions in Chinese and Japanese works. In both cultures, white foxes were seen as auspicious, offered to rulers or used in rituals. In China, they initially symbolized virtue, longevity, and prosperity but later became associated with yokai as other foxes were deemed sinister. In Japan, while white foxes were also portrayed as yokai, their image varied. This development included not only the malevolent white foxes that harmed humans, akin to those in China, but also white foxes symbolizing auspiciousness, demonstrating a broader range of interpretations.

Key words: White Fox, Auspiciousness, Yokai, Tamamo no mae,  
Comparative Literature between China and Japan